

2020년 낙찰 총액 1위 이우환 150억원

‘사랑은 나노입자’

목포 출신 양관수 소설가 창작집

한국미술시가감정협, 작년 경매시장 결산 총액 1153억원, 코로나 여파 5년만에 최저 쿠사마 야요이, 김환기, 박서보, 김창열 순 최고가는 쿠사마 야요이...이중섭도 상위권

지난 한해 국내 미술품 경매에서 가장 많은 낙찰 총액을 기록한 작가는 이우환 화백이었다. 단일 작품 최고 낙찰가는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가 기록했다. 또 경매 시장 낙찰 총액은 1153억원으로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 코로나 19 등으로 미술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와 아트프라이스(대표 고윤정)가 최근 2020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연말결산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8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에이옥션, 칸옥션, 꼬모옥션)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 분석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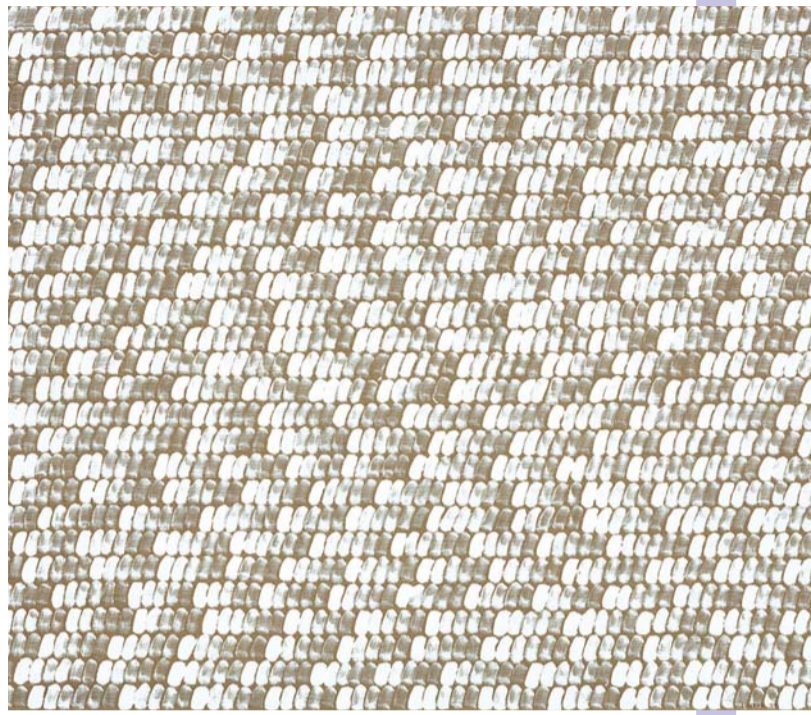
올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낙찰총액 1153억원은 2019년 1565억원, 2018년 2194억원, 2017년 1900억원, 2016년 1720억원에 비교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경매 총 출품작은 3만 276점, 낙찰작은 1만8349점으로 낙찰률 60.61%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만5962점 중 1만7279점이 주인을 찾아 낙찰률은 66.55%를 기록했다. 올해 경매 출품수가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서는 등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됐지만 낙찰총액은 가장 적어 그만큼 미술시장이 위축됐다고 볼 수 있다.

경매시장의 추이를 볼 때 지난해는 ‘이우환의 해’라 불릴만 하다. 이 화백은 149억 7000만원으로 낙찰총액 1위를 차지했으며 작품작 228점 중 180점이 낙찰돼 낙찰률은 78.95%로 높게 나타났다. 또 최고 낙찰가 30 순위에도 무려 10점을 올려 놓았다. 지난해 낙찰총액 1위는 김환기로 약 249억6000만원, 낙찰률 72.95%이었다. 2018년(354억7000만원)과 2017년(253억9800만원) 역시 김환기가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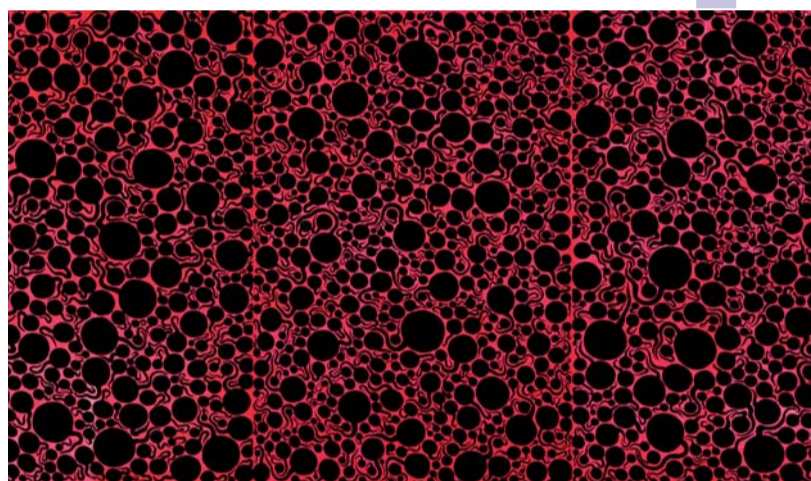
낙찰 총액 2위는 쿠사마 야요이(88억 9000만원)가 차지했으며 김환기는 3위(57억 9000만원)로 밀렸다. 박서보(45억 2000만원), 김창열(32억 3000만원), 정상화(20억9000만원)가 뒤를 이었으며 10위 안에는 이중섭·김중화·박수근·이대원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고희 출신의 천경자 화백은 13억 2000만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작품별 최고 낙찰가 1위는 쿠사마 야요이의 ‘Soul Burning Flashes’ (194cm×130.6cm, 3ea)가 차지했다. 낙찰가는 약 27억88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의 50% 미만 가격으로 지난 4-5년간 최저 가격으로 1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미술품 구매에 나선 큰손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증이다. 2019년에는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 약 72억4750만원, 2018에는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이 약 95억1400만원에 낙찰됐었다.

2위는 뉴욕서 환수된 18세기 병풍 ‘요지연도’ (20억)가 차지했으며 이우환의 작품은 ‘점으로부터 No.770100’ (181.8cm×227.3cm)가 15억2000만원으로 3위, ‘바람과 함께’ (9억원·162.2cm×130.3cm)가 10위를 차지했다. 4위는 쿠사마 야요이의 ‘infinity-Nest(OWTTY)’ (14억 5000만원)가 차지했으며 김환기는 ‘항아리와 날으는 새’ (10억



150억원으로 낙찰 총액 1위를 기록한 이우환 작 '점으로부터No.770100'



지난해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쿠사마 야요이 작 'Soul Burning Flashes'

7000만원·72.7cm×53cm) 등 두 작품이 5위와 8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이중섭의 ‘아버지와 장난치는 두 아이들’ (37.4cm×46.8cm)이 11억원으로 7위를 차지했으며 박서보의 ‘묘법 N0.10-78’ (9억원·130.3cm×162.2cm)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경매사별 1위는 517억원을 기록한 K옥션이 차지했으며 서울옥션은 코로나 비중에 높은 흥광 경매가 무산됨에 따라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434억원에 그쳤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아트프라이스는 올해 미술시장의 경우 경매 외에 미국 아트플랫폼 ‘아트시’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대중적인 작품과 다양한 컬렉터가 유입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중들의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한국 근현대 미술과 고미술의 거래가 활발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 선 위안을 삼을 만한 한해였다고 분석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품사진 제공(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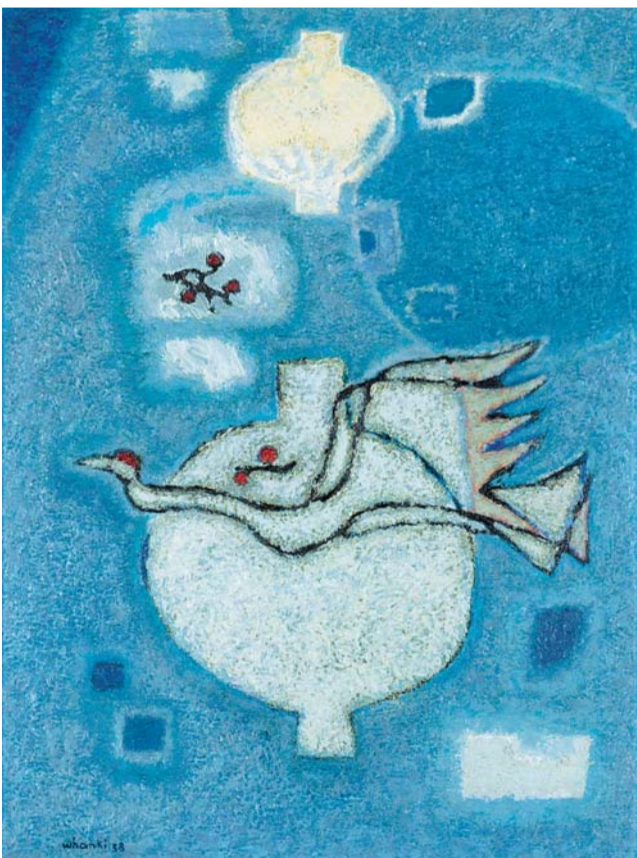
2020년 낙찰총액 15위 작가

순위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1	이우환	149억7천만	228	180	78.95
2	쿠사마 야요이	88억9천만	134	111	82.84
3	김환기	57억	127	77	60.63
4	박서보	45억2천만	71	56	78.87
5	김창열	32억3천만	205	154	75.12
6	정상화	20억9천만	45	30	66.67
7	이중섭	17억9천만	16	12	75
8	김중화	17억7천만	243	153	62.96
9	박수근	15억7천	99	66	66.67
10	이대원	14억4천만	218	117	53.67
11	요시토모 나라	13억3천만	67	53	79.10
12	윤형근	13억2천만	29	23	79.31
13	천경자	13억2천만	113	61	53.98
14	이월중	11억8천만	253	181	71.54
15	김홍도	11억	8	6	75.00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제공



이중섭 작 '아버지와 장난치는 두 아이들'



김환기 작 '항아리와 날으는 새'



올해 뉴욕에서 환수된 18세기 조선시대 병풍 '요지연도'는 20억에 낙찰돼 단일 작품 낙찰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목포 출신 양관수 소설가가 창작집 ‘사랑은 나노입자’ (북인)를 펴냈다.

단편 5편과 중편 1편 등 모두 6편을 엮은 소설집은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주인공들이 처한 현실은 아프고 고통스럽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젊다는 것이다. 저마다 욕망은 강하지만 그들이 딛고 선 사회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이원화 소설가의 “작가는 그들의 욕망을 꽃으로, 꽃의 생장을 통해 삶을 병치 또는 대치시켜 언어의 마술을 부린다”는 표현처럼 작가는 인물들의 욕망을 언어의 꽃으로 감싼다.

‘꽃무덤’은 자녀를 대하는 오늘의 부모들 모습을 투사한다. 주인공 엄마는 딸을 일류대로 대변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소설에서 피인물은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생리통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차용된다.

표제작 ‘사랑은 나노입자’는 여자 한 명과 남자 두 명의 동거라는 이색적인 조합을 그린다. 생선초밥을 만들어주는 남자, 홍채에서 푸른 빛을 내는 남자, 여기에 홍채의 빛을 자유롭게 바꾸는 연구로 박사학이 되고 싶은 나, 이 세 명의 조합은 삶의 미시적 조합을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된 장치다.

양 작가는 창작집 발간에 대해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고 싶었다. 나는 왜 살지? 세기 밥을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존적인 고민을 소설 속에 투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작가는 순천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포스트개념 시리즈 2050’, 동화 ‘순천만엔 용이 산다’를 펴냈으며 2003 하동 토지문학제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유아 돌봄·놀이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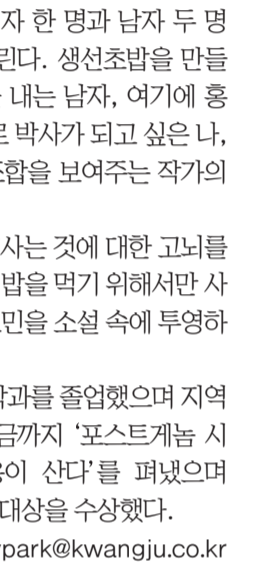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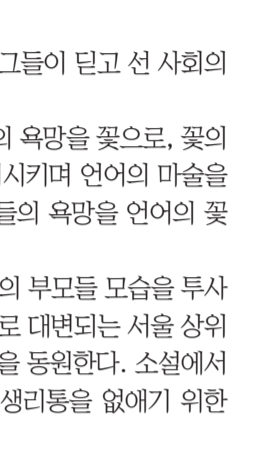
광주여성가족재단 제작 선착순 배포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영·유아들이 이용 가능한 돌봄 시설,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시설, 24시간 운영 소아과 응급시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유아 돌봄·놀이지도’를 제작, 배포에 나섰다.

‘영·유아 돌봄·놀이지도’ 앞면에는 5개구별 돌봄시설, 놀이시설, 장난감도서관, 불거리, 시간제보육시설, 24시간 소아과 응급시설 정보 등 125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지도 뒷면에는 각 구별로 가볼만 한 돌봄, 놀이시설 정보와 ‘임원아동돌봄서비스’, ‘광주아이키움’ 등의 사업이 정리되어 있다. 지도는 4월지보다 큰 552cm×370cm 사이즈로, 12점으로 제작해 차량 내에 비치해 들고 다니며 놀러갈 만한 곳을 고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미취학아동(만 0세-만 6세)을 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배송 접수는 선착순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 팝업창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모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057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